
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

추진 계획

2026. 8.

관 계 부 처 합 동

「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」 추진계획(요약)

I 추진 배경

- 국가가 도전과 실패의 비용을 과감히 지원하여 혁신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길을 여는 '모두의 창업 프로젝트' 발표

⇒ '모두의 창업'이 단발성 프로젝트를 넘어, 창업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첫 시작점으로 자리잡기 위해 '2차 모두의 창업' 추진

* 대통령 말씀사항 : "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길 바란다."('26.8.5)

II 1차 모두의 창업 추진 경과

- (신청·접수) 1차 모두의 창업 공고 결과 역대 정부 공모전 중 최고 수치인 6.3만명 기록*,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** 확인

* 9세부터 9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전 → 청년층 68.0%, 비수도권 53.4%

** (창업도전의향) 46.7%→60.2%(13.5%p ↑) (창업실패 부정적인식) 58.9%→30.1%(28.8%p ↓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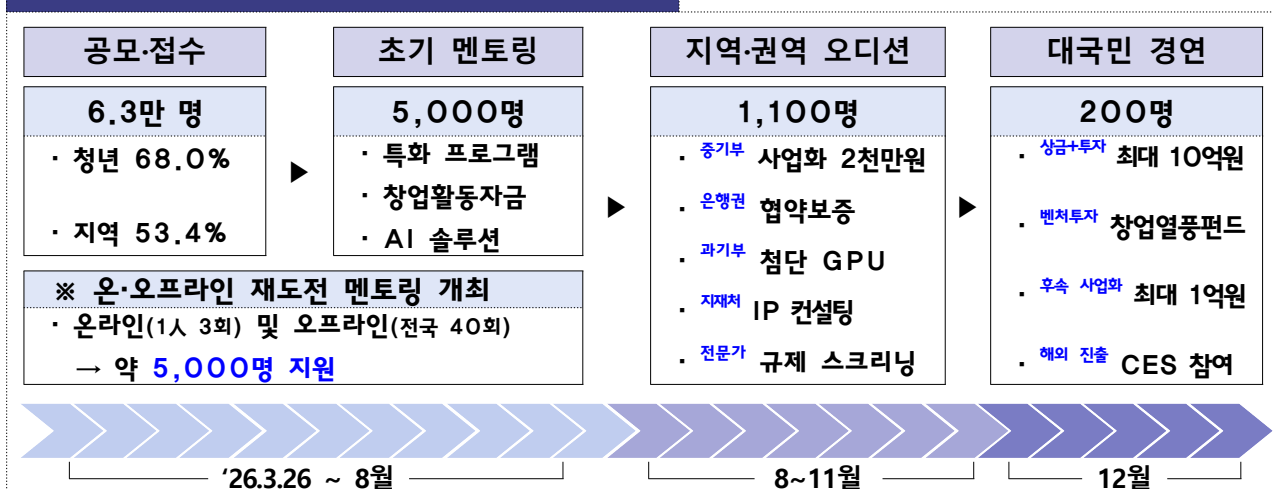
- (운영·지원체계)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1:1 초기 멘토링을 진행하고, 모두의 창업 합격자 1천 명 대상 아이디어 보호 지원

* 모두의 창업 합격자 설문조사 결과 멘토링 만족도 94.3점 달성 (1,521명 응답)

- 전국 17개 시·도 '모두의 창업 간담회'를 개최하여 현장 목소리 수렴*

* (즉시 개선사항) ①AI 솔루션 시연회(80개사) 진행 ②선배 창업가와 교류하는 '파운더스 서클' 개최

※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운영 프로세스



III

2차 모두의 창업 추진 계획

◆ (추진 방향) 1차 모두의 창업 혁신의 열기를 이어가, **도전의 문을 넓히고 성장의 기회**를 확대하여 '모두의 창업'을 **창업 생태계의 시작점**으로 안착

구분		1차 모두의 창업	2차 모두의 창업
도전의 문	규모	5천명 혁신 인재 선발 대학·AC 등 100여곳	2배 규모 확대 1만명 발굴 대·중견, 공공 등 170여곳
	리그	일반/기술 + 로컬 트랙	일반/기술 + 로컬 트랙 대학 + 청소년 + 소셜 + 글로벌
지원 체계	지원	창업활동자금, AI 솔루션 도전경력증명서 발행	창업활동자금 활용처 확대 , AI 솔루션 품질 제고 도전경력증명서 창업지원사업·용자 등 우대
	문화	지역별 창업 오디션 개최	선배창업가·동기·창업생태계·투자사 전국적인 창업 커뮤니티 구축
기반	신뢰	보안체계 개편 및 거버넌스 구축	

1 지원규모 확대 및 기관·멘토 확충

- **(도전자)** 1차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만 명 혁신 창업가*를 발굴하고, 이에 발맞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창업가의 범위**도 확대

* (초기 멘토링) 10,000명 → (지역 오디션) 2,200명 → (대국민 경연) 400명

** (기존) 예비창업자 + 창업 3년 이내 재창업 → (확대) 예비창업자 + **창업 7년 이내 재창업**

- **(보육 기관)** 우수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대·중견, VC, 공공기관이 '모두의 창업'에 신규 참여 → **170여 개 보육 기관*** 구성

* 대·중견 2개, AC · VC 60여개, 공공 20여개, 대학·민간기관 80여개

- **(멘토)** '모두의 창업' 참여 멘토의 자격 기준을 명문화하고, 활동 기관은 최대 2개로 제한하여 도전자에 대한 양질의 멘토링 보장

2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위한 특화 리그 운영

- **(대학)** 전국 창업중심대학을 허브로 지역 대학의 창업동아리를 모아, 해커톤 방식으로 경쟁하는 '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' 추진(7.30 개시)
- **(청소년)** 거점 비즈쿨 중심 청소년 창업팀을 발굴하여 실습·체험형 창업 경험을 제공하는 '모두의 창업 청소년 리그' 운영(280개팀 참여)
- **(소셜)** 5대 사회문제 선정, 이를 해결할 혁신 기술·아이디어 보유 창업자를 발굴·육성하는 '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' 신설(7.30 개시)
- **(글로벌)** 미주(실리콘밸리), 싱가포르, 인도 등 해외 현지에서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창업가들이 도전하는 '글로벌 리그' 신설(8월 개시)

3 심사체계 공정성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

- **(심사 체계 : 공정성 강화)** 현장 멘토 · 도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, 다면평가 운영, AI 검증모델 도입 등 심사 체계 전반을 개편
- **(지원 체계 : 고도화)** 창업활동자금 활용처 확대 및 AI솔루션 품질 제고*,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범부처 프로그램 연계**
 - * (창업활동자금) 온라인 PG 업종까지 활용처 확대, (AI 솔루션) 50개내외 기업 엄선
 - ** (과기부) 첨단 GPU 지원, (관세청) 수출 교육, 무역 통계 등
- **(도전 경력 : 우대)** 모두의 창업 도전 이력을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 → 창업지원사업·융자·R&D 우대 및 활용처 확대 추진

4 창업의 일상화를 위한 전국 창업 문화 확산

- **(창업 커뮤니티)** 서울(수도권), 대전(충청권), 부산(영남권), 광주(호남권) 4개 지역 중심 ‘모두의 창업’ 도전자들이 교류하는 창업 커뮤니티 구축
 - * (창업클럽) 선배창업가가 연사로 후배창업가에게 도전 과정의 노하우 전수 (함께 만드는 클럽) 모두의 창업 동료 도전자들 간 창업 모임 결성·운영
- **(커뮤니티 데이)** 개별 모임에서 형성된 교류를 전체 모두의 창업 커뮤니티로 확장하는 100여명 규모의 교류행사 개최(지역별 월 1회)
- **(도전의 IR)** 팁스 운영사와 연계하여 투자 유치부터 팁스 참여까지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단위 IR 개최(300회 이상)

5 모두의 창업 플랫폼 보안성 강화 및 운영 거버넌스 구축

- **(플랫폼)** 도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, 공공시스템 수준의 절차* 이행
 - * **국정원** 보안성검토 **행안부** 사전협의 **개보위** 개인정보 영향평가 **과기부** 소프트웨어 영향평가
- **(거버넌스)** 모두의 창업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
 - * (운영) 지역별 보육 기관을 관리·감독하는 ‘지역 허브기관’ 지정, 상시 소통체계 운영
 - ** (보안) **국정원** 보안성 검토, 기술자문, 침해 대응훈련 지속 추진
외부 보안관제 기업 상시 보안점검 체계 구축

□ **향후 일정(안) :** 2차 모두의 창업 공고(8.20) → 합격자 발표(10월초)
→ 초기 멘토링(~11월)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1차 모두의 창업 추진 경과	2
III.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	4
IV.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	5
1. 지원규모 확대 및 기관·멘토 확충	6
2.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위한 특화 리그 운영	7
3. 심사체계 공정성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	8
4. 창업의 일상화를 위한 문화 확산	9
5. 플랫폼 보안성 강화 및 운영 거버넌스 구축 ..	10
V. 향후 일정	10
[참고 1] 기관·합격자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	11
[참고 2]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홍보계획(안)	12

I 추진 배경

-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에 진입하며,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혁신 스타트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증가
 - 이에 세계 각국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 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,
 - * (EU) Startup & Scaleup Strategy ('25.5) (미국) AI Action Plan ('25.7) 등
 - 한국 또한 '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(1.30)'를 개최하여 창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가 되는 '창업중심국가'로의 대전환 선언
- 그 핵심 프로젝트로, 국가가 도전과 실패의 비용을 과감히 지원하여 혁신 인재들에게 창업의 길을 열어주는 '모두의 창업 프로젝트' 개시
 - 아이디어와 혁신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취업 시장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스스로 업을 창출하는 '창업'의 선택지를 제시하고,
 - 그 도전을 정부와 민간 창업 생태계*가 함께 이끌어줌으로써 창업을 '홀로 나아가는 길'에서 '함께 성장하는 문화'로 전환
 - * 전국 119곳 멘토 기관 + 500여 명 선배 창업가 멘토단
- '모두의 창업'의 지향점은 단발성 프로젝트를 넘어, 혁신을 꿈꾸는 국민들이 창업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첫 시작점으로 자리잡는 것
 - '1차 모두의 창업'이 촉발한 창업 열기를 전국적이고 상시적인 창업 열풍으로 확산시키기 위해
 -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전의 문을 더욱 폭넓게 넓히고, 지원 체계는 견고하게 보완한 '2차 모두의 창업' 추진

대통령 말씀사항

- "국가창업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'모두의 창업 프로젝트'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다." ('26.1.30.)
- "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시길 바란다." ('26.8.5.)

1 신청·접수 결과

- **(도전자)** 1차 모두의 창업 공고(3.26~5.15) 결과 정부 창업·아이디어 공모전 역대 최대 규모인 6.3만 명 신청

* 예비창업패키지(중기부, '26) : 14,717명 / 도전! K-스타트업(범부처, '25) : 7,377명

- 청년층(39세 이하) 및 지역 도전자가 각각 전체 신청자의 68.0% (4.3만명) 및 53.4%(3.4만명)을 기록하며 청년·지역의 창업 열기 확산

< 1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분야별 신청 현황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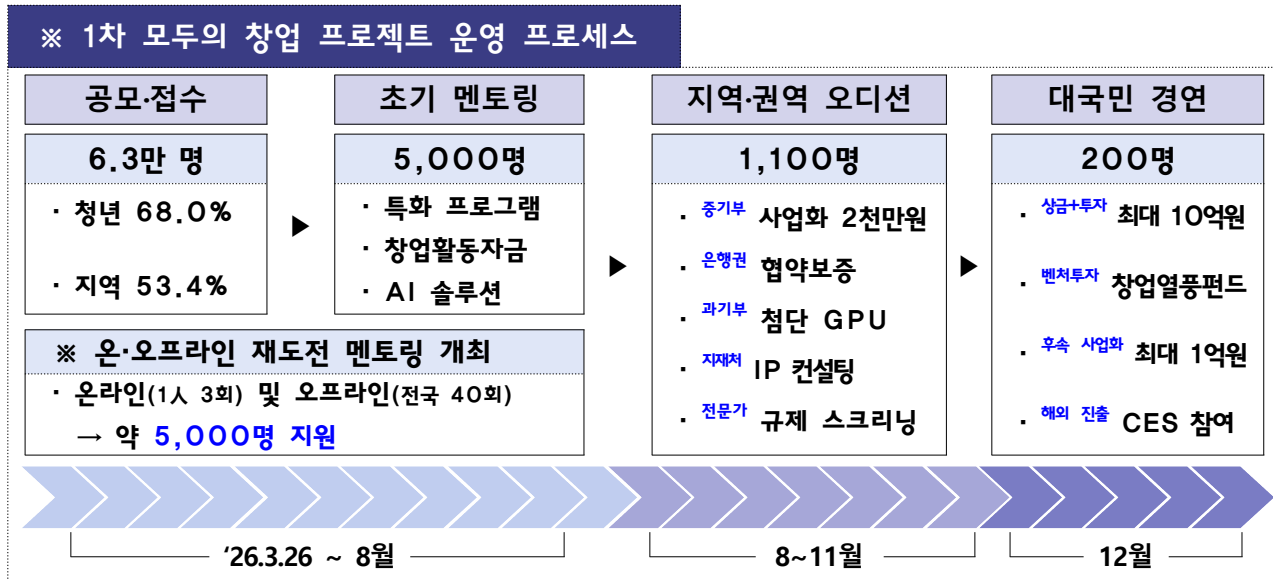
창업 분야별				연령별		지역별	
일반 / 기술	51,907명	IT	14,728명	20대 이하	26,631명 (42.3%)	수도권	29,316명 (46.6%)
		라이프스타일	11,360명			충청권	9,342명 (14.8%)
		교육	4,077명	30대	16,167명 (25.7%)	영남권	11,702명 (18.6%)
		바이오/의료	2,996명			호남권	7,408명 (11.8%)
		미디어/엔터	1,872명	40대	11,551명 (18.4%)	강원	3,992명 (6.3%)
		운영관리	1,650명			제주	1,184명 (1.9%)
		기타	4,876명	50대	6,197명 (9.8%)		
로컬	11,037명	생활	7,069명				
		F&B	2,992명				
		뷰티	553명				
		패션	423명				
				60대 이상	2,398명 (3.8%)		

- **(창업 인식)** 모두의 창업 개시 이후 사회 전반에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등 창업 문화 개선으로 연결

* 대학생, 직장인, 창업생태계 구성원 등 대상별 플랫폼을 통해 설문조사 진행('26.5~6)

창업 도전 의향 (%)	창업에 대한 접근성 (%)	창업 실패 부정적 인식 (%)
46.7 → 60.2	49.1 → 55.2	58.9 → 30.1
대학생 800명 (에브리타임)	직장인 900명 (리멤버)	창업생태계 1,500명 (창진원)

2 운영 · 지원 체계



- **(멘토링)** 기관별 특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, 개별 멘토링부터 집체형 창업 캠프까지 최소 4회 이상의 초기 멘토링 진행('26.5~8)

* 모두의 창업 합격자 설문조사 결과 멘토링 만족도 94.3점 달성 (1,521명 응답)

프로그램	현장 사진	프로그램	현장 사진
· (기관) 대전창경 · (참여인원) 약 35명 · (프로그램) 모두의 캠프(Build-Set up)		· (기관) 소풍벤처스 · (참여인원) 약 25명 · (프로그램) 모두의 창업 커넥트 데이	
▶ 창업역량 진단 + BM 정립 + 사업화 전략 수립		▶ 개별 멘토링 + 창업과제 공유 + 네트워크 구축	

- **(아이디어 보호)** 모두의 창업 합격자 1천 명 대상 아이디어 보호를 지원하고,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'아이디어 컨설팅 데이' 개최
- **(현장 간담회)** 전국 17개 시·도별 '모두의 창업 현장 간담회'를 개최하여 도전자 및 멘토 기관의 현장 목소리 청취
 - 현장 건의에 대해 ① AI 솔루션 시연회(80개사) 진행, ② 선배 창업가와 교류하는 '파운더스 서클(서울·대전·부산)' 개최 등 즉각적 보완 진행

※ 추가 검토가 필요한 현장 건의사항은 **창업지원 기관들과 함께 집중 논의하여 방안 모색** → **'2차 모두의 창업'** 추진 시 개선 방안 적용

III

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체계

- ◆ ^{1차} 도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어 ^{2차} 창업생태계 시작점으로 안착,
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부터 창업이 일상이 되는 문화 확산까지 추진

1차 모두의 창업	◆ 전 국민이 혁신에 도전하는 첫 번째 통로 구축			
	창업 도전 6.3만 명	청년층 68.0%	비수도권 53.4%	AI 활용 25.6%
	대국민 인식 제고	창업 도전 의향 증가 13.5%p ↑		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 28.8%p ↓

2차 모두의 창업	◆ 모두의 창업을 창업 생태계의 시작점으로 안착		
	⇒ 1차 모두의 창업 혁신의 열기를 이어가, 도전의 문을 넓히고 성장의 기회를 확대하여 모두의 창업을 창업의 시작점으로 안착		
	폭넓은 도전의문	지원은 크게 선택 폭은 넓게	도전은 어디서나 참여는 다양하게
		1만 명 혁신 창업가 발굴 170여 개 보육기관 확충	대학·청소년·소셜·글로벌 대상별 특화 리그 운영
	견고한 지원체계	도전은 편리하게 심사는 공정하게	경험은 나누고 시너지는 높이고
		창업활동자금·AI솔루션 고도화 창업 도전경력 우대	선배창업가·동료 도전자 및 투자사와 교류하는 창업 커뮤니티 구축
안전한 도전	도전은 안전하고 운영은 튼튼하게		
	플랫폼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모두의 창업 거버넌스 구축		

「모두의 창업」을 국가창업시대의 핵심 프로젝트로 정례화

IV

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계획

- **(개요)** '1차 모두의 창업'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된 1만 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하고, 단계별 보육·경연을 통해 체계적 성장경로 조성

2차 모두의 창업 지원체계

공모·보육 (1만명)	지역 오디션 (2천 2백명)	대국민 경진대회 (4백명)
1:1 초기 멘토링 창업활동자금(2백만원) AI 솔루션	초기 사업화자금(최대 2천만원) 과기부 GPU, 관세청 수출 교육 규제스크리닝 선배창업자·기술 멘토링 협약 보증, 투자 IR	상금+투자(최대 10억원) 후속 사업화 글로벌 진출 지원

* 트랙별 규모 : **(일반기술)** 공모·보육(8천명) → 지역오디션(1천명) → 대국민 경진대회(2백명)
(로컬) 공모·보육(2천명) → 지역오디션(1천2백명) → 대국민 경진대회(2백명)

- **(추진 방향)** ①도전의 문을 확대하고, ②지원 체계를 내실 있게 강화하고, ③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도전 기반 조성

⇒ '1차 모두의 창업'이 촉발한 창업 열기를 이어가, '모두의 창업'을 혁신 인재들이 창업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안착

구분		1차 모두의 창업	2차 모두의 창업
도전의 문	규모	5천명 혁신 인재 선발 대학·AC 등 100여곳	2배 규모 확대 1만명 발굴 대·중견, 공공 등 170여곳
	리그	일반/기술 + 로컬 트랙	일반/기술 + 로컬 트랙 대학 + 청소년 + 소셜 + 글로벌
지원 체계	지원	창업활동자금, AI 솔루션 도전경력증명서 발행	창업활동자금 활용처 확대 , AI 솔루션 품질 제고 도전경력증명서 창업지원사업·용자 등 우대
	문화	지역별 창업 오디션 개최	선배창업자·동기·창업생태계·투자사 전국적인 창업 커뮤니티 구축
기반	신뢰	보안체계 개편 및 거버넌스 구축	

1. **지원은 크게 선택의 폭은 넓게**
지원규모 확대 및 기관·멘토 확충

- **(도전자)** 1차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만 명 혁신 창업가*를 발굴하고, 이에 발맞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창업가의 범위**도 확대

* **(초기 멘토링)** 10,000명(일반/기술 8,000 + 로컬 2,000) → **(지역 오디션)** 2,200명
 (일반/기술 1,000 + 로컬 1,200) → **(대국민 경연)** 400명(일반/기술 200, 로컬 200)

** **(기존)** 예비창업자 + 창업 3년 이내 재창업 → **(확대)** 예비창업자 + **창업 7년 이내 재창업**

- 다만 프로젝트의 취지를 고려하여 ①예비창업자를 80% 이상 선발하고, 지역 균형성장 차원에서 ②비수도권 창업자를 70% 이상 선발
- '1차 모두의 창업' 탈락 후 재도전 이력을 우대*하고, 여타 창업·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발굴된 혁신 인재**는 패스트트랙 선정

* 온·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 이수 + 창업 아이디어 보완 이력

** 지식재산청 '모두의 아이디어' TOP 100 중기부 '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' 결선 진출팀

- **(보육 기관)** 우수 창업지원 역량을 갖춘 대·중견, VC, 공공기관이 '모두의 창업'에 신규 참여 → 170여 개 보육 기관 구성

* **(1차 : 119개)** 대학 49개, AC·VC 46개, 공공기관(창경 등) 24개
 → **(2차 : 170여개)** 대·중견 2개, AC·VC 60여개, 공공 20여개, 대학·민간기관 80여개

< 2차 모두의 창업 신규 참여기관 >

대·중견기업		VC · AC		대학	공공
					

- **(멘토)** '모두의 창업' 참여 멘토의 자격 기준을 명문화하고, 활동기관은 최대 2개로 제한하여 도전자에 대한 양질의 멘토링 보장

* **(멘토 보호)** 플랫폼상 멘토 개인정보 삭제 및 심사평 멘토 명의 → 기관 명의 전환
(멘토 관리) 멘토 비위행위 적발 시 제재처분 기준 마련 및 1차 만족도 평가 결과 반영

- 기관별 멘토 풀을 보육 단계(예비·초기) 및 특화 분야에 따라 구분하여, 도전자의 특성에 적합한 멘토 매칭 강화

2. 도전은 어디서나 참여는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위한 특화 리그 운영

- **(대학)** 전국 창업중심대학을 허브로 지역 대학의 창업동아리를 모아, 해커톤 방식으로 경쟁하는 '모두의 창업 대학 리그' 추진(7.30 개시)
- **(청소년)** 거점 비즈쿨 중심 청소년 창업팀을 발굴하여 실습·체험형 창업 경험을 제공하는 '모두의 창업 청소년 리그' 운영(280개팀 참여)

< 모두의 창업 대학 · 청소년 리그 추진 체계 >

구분		참가자 모집	지역 라운드	결선 라운드	후속연계
대학	11곳 창업중심대학 + 권역별 지역 대학	550개팀	110개팀	무박2일 해커톤 22개팀	모두의 창업 우선 진출
청소년	11곳 거점 비즈쿨 + 지역 중·고등학교	280개팀	200개팀	11개팀	

- **(소셜)** 5대 사회문제* 선정, 이를 해결할 혁신 기술·아이디어 보유 창업자를 발굴·육성하는 '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' 신설 (7.30 개시)

* 5대 과제 : ❶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, ❷일자리·사회참여 확대, ❸중소사업장·취약 계층 에너지 개선, ❹AI 활용 중소·소상공인 생산성 제고, ❺자원순환 촉진 · 폐기물 해결

< 모두의 창업 사회혁신 소셜벤처 리그 추진 체계 >

단계	서류심사	발표평가	최종선정
기업수	100개사	40개사	10개사
지원	문제 구체화, BM 고도화 (임팩트 활동 200만원)	솔루션 정립, 데이터 활용 (멘토링 500만원 + 임팩트 보증)	장관 표창 및 사업화 (최대 1.5억원)

- **(글로벌)** 미주 (실리콘밸리), 싱가포르, 인도 등 해외 현지에서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창업가들이 도전하는 '글로벌 리그' 신설(8월 개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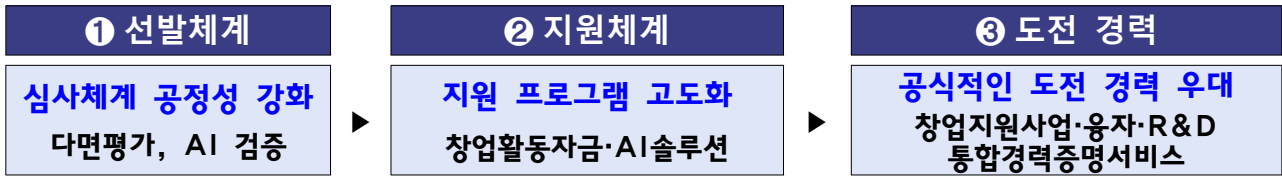
* 국가별 선발 규모 및 운영 기관 : (미국) 40명, SVC(실리콘밸리) 및 KSC(뉴욕) (싱가포르) 20명, KSC(싱가포르) (인도) 20명, 민간 창업기관

- 사업화 자금(최대 3천만원), 현지정착 프로그램, 글로벌 멘토링 지원

< 국가 · 분야별 전문 액셀러레이터(안) >

미주		아시아	인도		
실리콘밸리	뉴욕	싱가포르	하이데라바드	뭄바이	첸나이
ALCHEMIST	HAX	SUSV	PLUGANDPLAY	SBC	THE CIRCLE -founders club

3. 도전은 편리하게 심사는 공정하게 심사체계 공정성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



- **(심사 체계 : 공정성 강화)** 현장 멘토 · 도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, 다면평가 운영, AI 검증모델 도입 등 심사 체계 전반을 개편

< 모두의 창업 심사 체계 개편 내용 >

다면 평가	· 멘토 3인 공동심사 + 보육 기관 심의위원회
AI 검증	· AI 생성물 검사 + 외부 데이터(논문, 공모전 등) 표절 검사
심사 절차	· 첨부 영상 확인 의무화 + 심사 피드백 하한제(200자 이상) 도입
서류 편의성	· 필요 서류 온라인 제출기능 도입

- 도전자의 역량과 특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'모두의 창업' 신청 시 작성 항목 세분화

* (기존) 3개 항목(WHY·WHAT·HOW) → (개편) 최대 6개(READY(역량), 기창업자, 재도전자)

- **(지원 체계 : 고도화)** 창업활동자금 활용처 확대 및 AI솔루션 품질 제고,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범부처 프로그램 연계

- **(창업활동자금 : 활용처 확대)** 초기 도전활동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PG 업종까지 활용 범위 확대(별도 증빙서류 제출)

* 해외 AI 솔루션(ChatGPT, Claude 등)에도 창업활동자금 활용 가능

- **(AI 솔루션 : 역량 고도화)** AI·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50개 이내 AI 솔루션 기업을 엄선하여 AI 솔루션 Pool 품질 향상

* (1차) 283개 기업 · 406개 솔루션 → (2차) 약 50개 기업 · 150개 솔루션(기업당 최대 3개)

- **(범부처 연계 지원)** 지역 오디션 진출자 대상 과기부 첨단 GPU 공급, 관세청 맞춤형 수출 교육, 무역통계 활용, 후속 컨설팅(대국민 경연 진출자) 지원

- **(도전 경력 : 경력 우대)** 모두의 창업 도전·진출 이력을 담은 '도전 경력증명서' 발행 → 창업지원·융자·R&D 우대 및 활용처 확대 추진

* 창업지원사업 가점 부여, 창업 인프라 입주 우대, 우대 금리 지원, R&D 가점 등

4. **경험은 나누고 시너지는 높이고** **창업의 일상화를 위한 전국 창업 문화 확산**

- **(창업 커뮤니티)** 서울(수도권), 대전(충청권), 부산(영남권), 광주(호남권) 4개 지역 중심 ‘모두의 창업’ 도전자들이 교류하는 창업 커뮤니티 구축
 - **(^{선배창업가} 창업 클럽)** 선배 창업가가 연사로 ‘모두의 창업’에 참여하는 후배 창업가 모집 → 창업 인사이트 및 도전 과정의 노하우 전수

※ 사례 : 코스포 ‘더 헤리티지(The Heritage)’

· 창업가가 마주하는 실제 판단의 순간과 고민을 선배가 후배 창업가에게 공유하는 장
→ (1차) ‘26.5월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주최, 15명 내외 소규모 인원’으로 구성

- **(^{동료도전자} 함께 만드는 클럽)** ‘모두의 창업’ 도전자 대상 커뮤니티 운영 노하우를 교육하고, 동문 간 창업 모임 결성·운영 지원
⇒ 클럽 프로필(모임장, 활동 주제 등) 및 모임 일정을 게시하여 도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, 운영·관리 체계를 통해 커뮤니티 지속성 확보

- **(커뮤니티 데이)**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별 모두의 창업 도전자들이 창업 생태계 구성원과 함께 만나며 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17개 시·도별 ‘커뮤니티 데이’ 개최

< 예) 지역별 창업 커뮤니티 데이 >



- **(도전의 IR)** 팁스 운영사와 연계하여 투자 유치부터 팁스 참여까지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 단위 IR 개최(300회 이상)
 - ‘모두의 창업’ 지역 오디션 진출자(1차+2차) 및 지역 단위 우수한 창업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이끄는 문화로 확장

5. 도전은 안전하고 운영은 튼튼하게 플랫폼 보안성 강화 및 운영 거버넌스 구축

- ☐ **(플랫폼)** 도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, 공공시스템 수준의 절차 이행
 - **(보안 체계)** 국정원 및 외부 보안 전문기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안성을 강화하고,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
 - * **(보안성)** API 포함 정보 최소화, 비정상 접근 탐지·차단 고도화, 암호화 강화
(개인정보) 개인정보 보유·파기 기준 정비, 창업 아이디어 관리 강화, 접근 권한 재설계
 - **(행정 절차)** 관계 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공공 정보시스템에 요구되는 행정 절차들을 철저히 이행
 - * **국정원** 보안성검토 **행안부** 사전협의 **개보위** 개인정보 영향평가 **과기부** 소프트웨어 영향평가
- ☐ **(거버넌스)** 모두의 창업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
 - **(운영)** 지역별 보육 기관을 관리·감독하는 역할에 전담하는 ‘지역 허브기관’을 지정하고, 창진원-지역 허브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 운영
 - **(보안)** **국정원** 보안성 검토, 기술자문, 침해 대응훈련 지속 추진
외부 보안관제 기업 상시 보안점검 체계 구축

V

향후 일정(안)

- ☐ 1차 모두의 창업 : 서면평가(8월말~9월초) → 지역 오디션 (10월 중순)
→ 권역 오디션 (12월초) → 전국 오디션(12월)
- ☐ 2차 모두의 창업 : 2차 모두의 창업 공고(8.20) → 합격자 발표(10월초)
→ 초기 멘토링(~11월)

참고 1

기관 · 합격자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

권역	지역	주요 건의사항	조치 경과 · 계획
수도권	인천	· 창업활동자금 사용처 확대 · 창업활동자금 집행기준 개선	▶ · 별도 증빙을 전제로 온라인 PG 업종 까지 사용처 확대 (2차 모두의 창업) · 1차 만족도, 전문가 평가 등 반영 50개 이내 AI 솔루션 기업 엄선 (2차 모두의 창업)
	경기	· AI 솔루션 품질·가격 개선	
	서울	· AI 솔루션·선택 편의성 확대	
충청권	세종	· 예비/기창업자 지원체계 분리	▶ · 예비창업가를 80% 이상 선정 하고, 예비/기창업자 멘토 풀 이원화 (2차 모두의 창업) · 모두의 창업 플랫폼 내 공개되는 멘토 개인정보 최소화 (기조치 완료)
	대전	· 예비창업자 추가 지원 필요	
	충북	· 사업 운영 시 멘토 신상 보호	
	충남	· 플랫폼 내 정보보호 강화	
호남권	광주	· 지역 단위 창업 교류활동 지원 · 인사이트 강연 개최	▶ · 서울·대전·부산 3개 지역에서 ‘파운더스 서클’ 개최 (기조치 완료) · 기관별 보육 성과 및 도전자 진출 이력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(기조치 완료)
	전남	· 우수 기관 인센티브 제도 마련 · 기관별 보육성과 평가체계 도입	
대경권	경북	· 보호를 위한 심사평 비공개 · 심사평 제공·공개 방식 개편	▶ · 멘토 명의로 공개된 심사평을 기관 명의로 전환 (2차 모두의 창업) · 모두의 창업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신설(modoopolice) (기조치 완료)
	대구	· 부정행위 신고채널 개설 및 운영 · 도전자, 멘토 등 관리 강화	
동남권	부산	· 아이디어 신청서 항목 보완 · 멘토 보호 조치 마련	▶ · 모두의 창업 신청서 개편 , 멘토 명의로의 심사평을 기관 명의로 전환 (2차 모두의 창업) · 모두의 창업 신청서 개편 , 도전자 역량, 특성에 대한 작성 항목 추가 (2차 모두의 창업)
	경남	· 도전자 역량을 신청서에 추가	
	울산	· 도전자별 특성 관련 항목 추가	
그 외	강원	· 멘토 수준·전문성 강화 · 도전자 맞춤형 멘토 매칭 고도화	▶ · 멘토 선정기준 명문화 및 도전자 유형에 따른 매칭 가이드 제공 (2차 모두의 창업) · 도전자들이 창업 생태계에서 함께 교류하는 창업 커뮤니티 활성화 (2차 모두의 창업)
	전북	· 도전자 간 창업 커뮤니티 지원	
	제주	· 창업 관련 행사 개최	

참고 2

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홍보계획(안)

- **(개요)** 1차 홍보로 대국민 관심·인지도는 충분히 확보, 2차 모집은 1기 탈락자는 물론 확대된 지원규모, 자격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전개
 - ‘사소한 아이디어도 가능’, ‘더 넓어진 도전의 문’을 강조하여 일상 속 작은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강조

< 2차 캠페인 주요 영상 >



- **(집중 모집)** 모집기간에 잠재적 도전자의 유입 및 신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온·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 추진(8.20.~9.11.)
 - (온라인) 유튜브, 메타, 넷플릭스, 네이버, 카카오, 주요 플랫폼(토스, 당근, 배민, 에브리타임, 혁신의숲 등), 커뮤니티(맘카페) 광고 진행
 - (오프라인) 서울역, 부산역 등 주요 거점 도시 대중교통 옥외매체, 전국 아파트 엘리베이터(타운보드) 등을 활용,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
 - * 캠페인 모델(연예인, 일반인)을 활용한 오프라인 포스터 제작·배포
 - (타깃 홍보) 모두의 창업 플랫폼 회원(1기 탈락자) 대상 알림톡 발송, K-스타트업 회원가입 대상 이메일 홍보 등 맞춤형 홍보 강화
 - * 재도전,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 등 확대된 지원자격을 중심으로 안내
- **(SNS 참여 확산)** 공식 SNS(유튜브, 인스타그램)를 활용한 참여형의 이벤트를 통해 자발적 콘텐츠 확산 및 모집 열기 제고
 - * ‘1만 도전자 달성’, ‘누적 접속자 100만명 달성’, ‘모집 마감 임박’ 등 주요 모집 단계별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하여 대국민 관심 지속 유도
- **(콘텐츠 제작)** 1차 도전자들의 창업 여정, 선배 창업가들의 창업 경험을 콘텐츠화하여 심리적 장벽 완화 및 창업 긍정적 인식 확산
- **(지역 홍보체계 구축)** 지역허브기관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홍보 추진